

## ■ 고3 변경된 자기소개서 3번 문항 작성방법

김진건 소장

현재 고3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2학년도부터 대학 입시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문항이 2021학년도에 비해 축소됩니다. 기존의 자기소개서는 3개의 공통문항과 1개의 대학 자율문항으로 4500~5000자로 구성되었다면, 지금 고3 학생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자기소개서는 2개의 공통문항과 1개의 대학 자율문항, 총 3개 문항 3,100자로 구성됩니다.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1단계 평가 항목인 서류전형에서 학생부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2022학년도부터 추천서가 없고 서류 평가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3년간의 학교생활 중에서 수험생이 의미 있게 활동했거나 자신의 지적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학습 경험 등 학생부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완, 보충 설명해주는 항목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중요한 3학년 여름방학 시기에 한 달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문항이 축소되고 내용도 바뀌어서 기존의 사례를 바탕으로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힘든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다 자기가 한 활동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깊게 준비해 놓는다면 면접 준비할 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고3 학생은 지금 시점에서 미리 자기소개서 글감을 확인해보고 전체적인 자기소개서 윤곽은 물론 항목별로 구체적인 초안 작성을 시작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1번, 2번 작성방법에 이어 오늘은 3번 대학 자율문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바뀐 3번 항목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1) 자기소개서 3번 문항 변경사항

새롭게 바뀐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은 기존의 4번 자율 문항입니다. 말 그대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글자수는 기존의 1,000자에서 800자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은 1번, 2번 문항과 달리 자율적으로 정하는 항목이므로 실제 3번 문항이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자소서 3번 문항은 자체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3학년까지의 학생부를 정리, 요약해서 면접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자소서 없는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이나 3번 문항이 없는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자기소개서 자율문항인 3번 문항에 대해서 아래에 제시해 놓은 방법에 따라서 한번 정도는 작성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분	2021 자기소개서 문항	2022 자기소개서 문항
3	대학 자율문항(1000자~1500자)	대학 자율문항(800자)

## 2) 자기소개서 3번 문항 접근방법

이번에는 대학 자율문항인 4번 문항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번 문항은 크게 두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대 케이스입니다. 서울대는 다른 대학과 달리 독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때 읽은 책 중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준 책 2권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쓰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3권, 각 500자였는데 자기소개서 문항과 글자수가 축소되면서 올해부터는 2권, 각 400자로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입니다.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자기소개서 자율문항은 대부분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 즉 지원동기 ②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어떤 준비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③ 그리고 자신이 지원한 대학/학과에 진학한 후에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즉 학업계획 ④ 마지막으로 졸업한 후에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진로계획, 요약하면 지원동기, 준비와노력, 학업계획, 진로계획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내용 중에서 어떤 대학은 지원동기/준비와노력을, 어떤 대학은 지원동기/진로계획을, 어떤 대학은 지원동기/학업계획을, 어떤 대학은 지원동기/학업계획/진로계획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뀐 3번 자율문항을 준비할 때 지원동기, 준비와노력, 학업계획, 진로계획을 각각 작성해놓은 상태에서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에 맞춰서 조합을 하여 재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1단계 평가 요소인 서류중의 하나로 반드시 필요한 대학이나 자기소개서가 없어도 되는 대학의 경우, 아니면 3번 문항이 없는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면접을 위해서는 지원동기, 준비와노력, 학업계획, 진로계획은 중요한 준비과정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3번 문항 항목이 다를지라도 될 수 있으면 3번 문항 안에 지원동기, 준비와노력, 학업계획, 진로계획 모두를 조금씩 녹여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원동기와 학업계획에 대해서 쓰라는 학교라면, 큰 지원동기 안에 작은 지원동기, 준비와노력, 진로계획을 녹여서 쓴 다음에 학업계획을 쓰고, 지원동기와 진로계획에 대해서 쓰는 대학이라면, 단순히 지원동기와 진로계획만 쓰지 말고, 큰 지원동기 안에 작은 지원동기, 준비와노력, 학업계획을 쓴 다음에 진로계획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원동기와 준비와노력을 쓰는 학교라면, 큰 지원동기 안에 작은 지원동기, 학업계획, 진로계획을 녹여낸 다음에 준비와 노력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동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꿈, 최종적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그 무엇이 되고 싶은 이유나 계기는 무엇인지, 그 무엇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각각 써 본 후에,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학과의 특징, 장점, 시스템, 인재상을 각각 찾아서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A학과가 다른 학교에도 있는데 왜 우리 대학 A학과를 선택했는지 말해보시오?”라는 물음에 대답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A학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A학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도 풍부해지고 면접장에 가서도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한 형식이기도 하지만 면접의 기초 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 힘들더라도 좀 더 많이,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준비와노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지원할 전공(진로)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와 노력을 했는지를 정리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전공과 관련된 준비와 노력은 아니더라도, 전공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어차피 사회생활을 할 것이므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소통 능력, 리더십 등등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노력을 했는지를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와 노력한 과정을 정리한 후에, 준비와 노력의 내용이 자기소개서 1,2번 항목에 이미 들어가 있다면 3번에는 간략하게 쓰고, 준비와 노력한 내용들이 1,2번 문항에 없다면 좀 더 길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와노력’의 경우는 바뀐 자기소개서에 있어서 1번 문항과 내용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1번 문항이나 2번 문항의 경우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있어도 되고 관련이 없어도 상관없었지만, 작년의 1번, 2번 문항이 합쳐서 새롭게 바뀐 1번의 경우에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처럼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바뀐 3번 문항 작성에 있어서도 1번에 작성한 내용 외의 전공 관련 부분이나 아니면 리더십, 소통능력 등 기타 준비와 노력 내용, 그리고 1번 문항에서 빠진 진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업계획’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방향에서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지원한 전공에 대한 학업계획,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지원한 대학/학과의 홈페이지에 있는 교과과정을 찾아보고 자신이 가장 공부하고 싶은, 가장 연구하고 싶은 과목을 선정해서 어떻게 깊게 연구할 것인지를 적어봐야 할 듯 합니다. 가장 관심 있는 과목이 자신의 최종 꿈과 관련된 과목이면 더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원동기의 ‘무엇을 하고 싶은지’와 연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전공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인접학문에 대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외교관이 꿈이라면 외교관에 대한 전공 공부도 필요하지만 인접학문으로 영어회화도 열심히 공부해서 능숙하게 영어로 의사소통을 있도록 하겠다는 등 자신의 전공 외에 전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업에 대한 계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자신이 진학했을 때 어떤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전공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정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계획’은 졸업한 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야 합니다. 취업을 한다면 어떤 분야에 취업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최종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밟을 것인지, 가능하다면 30세, 40세, 50세에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로드맵을 미리 그려보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또한 대학 졸업을 한 후 대학원에 진학한다면, 대학원에서 어떤 연구에 집중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대학원에서의 연구도 지원동기의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학업계획의 ‘관심 과목’과 연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 졸업 이후에 어떤 과정을 밟을 것인지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상에서 적어 놓은 것은 직업인으로서의 내 진로를 말한 것이라면, 졸업한 후에 자신이 대학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재능기부도 진로계획에 포함시켜도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간호학과를 졸업한다면, 시간을 내서 요양원, 양로원 같은 공익기관에서 재능기부를 해보겠다는 등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서 배운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의 3번 문항은 자율문항으로 각 대학마다 다릅니다. 많게는 6개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지원동기, 준비와노력, 학업계획, 진로계획을 각각 작성해 놓은 후에 각 대학의 항목에 맞춰 재구성하면 그만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의 경우는 위에 말한 것처럼 고등학교 때 읽은 책 중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준 책 2권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쓰는 것입니다. 서울대의 경우에도 첫째,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그 책을 선정하거나 읽게 된 계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각각의 책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셋째, 그 책에서 인상 깊은 내용과 구절은 무엇인지, 넷째, 마지막으로 각각의 책을 통해 배우고 느낀점이 무엇인지, 각각의 책이 자신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각각 쓰고 나서 조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물어보는 수준이 아닌 자기소개서 자율문항으로 정해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자신에게 영향을 준 책 2권에 대해서는 운만 띄워도 자신있게 몇 시간 동안 열변을 토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나 배경 그리고 의미까지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를 준비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도 자신에게 영향을 준 책 2권 정도는 선정하고 그 이유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주요대 3번 자율문항)

대학	내용	글자수
서울대	고등학교 재학 기간(또는 최근 3년간) 읽었던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2권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800자
연세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800자

고려대	없음	-
서강대	없음	-
성균관대	성균관대학교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본인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자
한양대	없음	-
이화여대	3번 없음	-
중앙대	추가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중 지원자의 우수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자
경희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준비 과정에서 배운점을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800자
서울시립대	지원동기와 향후 진로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학부(과) 인재상을 고려하여 작성)	800자
한국외대	없음	-

-----

자기소개서 작성은 쉽지 않습니다. 지문이 나와 있고, 나와 있는 지문을 분석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는 논술 같은 경우도 최소 6개월 이상 연습을 해도 쓰기가 쉽지 않은데, 자신이 직접 지문을 만들고(아이템 선정 및 틀 만들기), 만든 지문을 바탕으로 매력 있게 자신을 포장해야 하는 작업을 단기간에 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기말고사 준비 시작하기 전인 지금 시점에서 자기소개서 바뀐 문항을 확인해보고 각 항목별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윤곽은 물론 초안 정도는 작성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초안을 작성해 놓고, 7월 모의고사 본 날 다시 한번 수정하고, 기말고사 끝나는 날 수정해야만, 여름방학 때 2주 정도 내에서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게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쯤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을 통해 글감을 구성해보고 내용이 부족할 경우에는 3학년 교과 세특이나 3학년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을 통해서 글감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번 자율 문항은 대학마다 다르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비슷하게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3학년 학교생활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시작하기 전인 지금 반드시 학생부를 통해 자율문항에 대한 글감도 확인해보고, 글감이 없다면 3학년 때라도 3번 자율문항에 대한 글감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을 받은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님께서 나중에 어떤 감독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묻는 인터뷰에서 “이상한 작품을 만든 감독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상한’은 ‘특특한’, ‘창의적인’의 다른 말일 것입니다. 교수님과 입학사정관에게 독특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시다.